

일요일 오전의 베란다는 온도의 경계선 같다. 거실의 따스한 온기와 바깥 공기의 서늘함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공간. 그곳 세탁기 위에는 언제나 묵직한 노란색 액체 세제통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세제통은 늘 어머니 손에 들려 있었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세제 뚜껑을 돌려 정확한 양을 계량하고, 세탁기 안으로 쏟아붓는 모습은 마치 거룩한 의식처럼 당연해 보였다. 아버지는 베란다 문을 열고 “내 와이셔츠는 따로 빨아야지?”라고 묻곤 하셨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불평등이라거나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역할의 분담이란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성별의 매뉴얼에 따르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면서 다짐했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가사는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 우리는 결혼 전 엑셀 파일까지 켜두고 규칙을 정했다. 청소와 설거지는 내 담당, 요리와 빨래는 배우자의 담당. 구역을 정확히 나누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만이 가장 공평하고 현대적인 양성평등의 실천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삶은 숫자로 나누어떨어지는 분수 공식이 아니었다.

계산기처럼 두드려 맞춘 분담은 생각보다 쉽게 빠져거렸다. 늦은 퇴근이 이어지던 주간, 싱크대에는 내가 치워야 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배우자는 피곤한 몸으로 거실에 앉아 쌓여가는 설거짓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나는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며 낯을 세웠다.

“내 피로와 당신의 피로를 어떻게 저울에 올려놓고 똑같이 나눌 수 있어? 이건 공평한 게 아니라 그냥 방임이야.”

배우자의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쿵 찢었다. 내가 생각한 양성평등은 그저 ‘내 몫의 노동만 하고 빠지는 암체 같은 방어기제’에 불과했다. 가사 노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구역의 분할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의 연속성에 있었다. 양성평등이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숨어, 나는 여전히 가사와 돌봄을 나와 분리된 무언가로 취급하고 있었다. 단지 과거의 아버지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 동안 빗자루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배우자가 잠든 사이 조용히 싱크대 앞으로 갔다. 그릇을 닦으며 문득 베란다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노란색 세제통이 보였다. 나는 한 번도 저 세제통의 무게를 진심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빨래가 마르는 동안 집안에 퍼지는 향긋한 냄새만 누렸을 뿐, 그것을 위해 누군가가 세탁기를 돌리고, 젖은 옷가지를 털어 널고, 날씨를 살피는 보이지 않는 ‘인지적 노동’은 온전히 배우자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규칙을 지웠다. 대신 ‘보이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유연한 연대의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주로 하던 일의 프로세스를 온전히 학습하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세탁기 매뉴얼을 정독했다. 울 코스와 표준 코스의 차이를 배우고, 옷감 뒤에 붙은 세탁 라벨을 확인하는 법을 익혔다. 흰옷과 색깔 옷을 분류하는 번거로움 속에서, 그동안 배우자가 조용히 감내해 온 시간의 부피를 만졌다. 배우자 역시 내가 주로 하던 화장실 배수구 청소나 분리수거의 고단함을 몸으로 겪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한다는 것은, 서로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거창한 투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일상에 존재하는 미세한 불편함을 먼저 알아채고, 그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겠다는 다정한 다짐에 가까웠다. 아내가 바쁜 아침에는 내가 찌개를 끓이고 아내의 출근길 가방을 챙겼다. 내가 야근으로 지친 저녁에는 아내가 베란다의 세제통을 들었다.

서로의 영역을 가르던 선이 사라지자, 역설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평온이 찾아왔다.

우리는 더 이상 “이건 내 일인데 왜 안 도왔냐?”며 날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오늘 고생 많았으니 이건 내가 할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고 간다.

얼마 전, 주말을 맞아 대청소하던 중 거실 매트에 붉은 토마토소스 얼룩이 묻은 것을 발견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지워야 해?”라며 아내를 불렀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베란다로 가 노란 세제통을 열고 베이킹소다를 섞어 부드러운 솔로 얼룩을 문질렀다. 몇 번의 손길 끝에 붉은 자국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가사와 돌봄은 삶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깨끗한 도화지로 만드는 일이다. 이 반복적이고 숭고한 노동을 어느 한 성별의 몫으로만 남겨두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공평한 호흡은, 결국 우리가 문을 열고 나설 직장 and 학교, 그리고 더 큰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 역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얼룩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 일상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묵묵히 문지르다 보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우리 집 베란다의 노란 세제통은 내 손과 아내의 손을 번갈아 타며 기분 좋은 무게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